

# 현시기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은 생산장성의 중요담보

윤 영 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활동과정에 존재하는 예비동원은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재정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재정활동과정에서의 재정예비는 사회주의경제체도의 본질적우월성에 기초하여 국가의 기능수행을 위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새로 동원할수 있는 가능성이다.

재정은 다른 경제활동과는 달리 현물적으로가 아니라 화폐형태를 통하여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형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다. 이로부터 재정예비는 그 자체가 화폐형태를 띠지 않을수 없다. 화폐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재정예비는 재정활동과정에 동원리용되지 않고 잠재해있으면서 화폐자금의 조성과 동원, 분배리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재정예비는 이미 마련된 재정토대의 합리적리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미 마련된 재정토대에 기초하여 화폐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것은 재정수입을 더 늘리고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경제적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현시기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이 생산장성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생산장성을 이룩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제재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고 있다. 특히 적들은 우리 나라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된 조건에서 경제강국으로까지 되는것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재정, 금융, 무역 등 국제경제거래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자면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 방법으로 생산장성을 위한 자금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자립적재정토대에 의거한 재정예비동원을 떠난 자금문제해결이란 외자도입밖

에 없다. 외자도입에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생산장성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재정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적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에도 끄떡없이 자체의 힘으로 생산장성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도 일떠세울수 있다.

재정예비의 남김없는 동원이 생산장성을 위한 자금수요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것은 재정예비자체의 특성과 관련된다.

재정예비는 화폐자금의 구성과 동원, 분배비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가능성인것으로 하여 이미 있는 재정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축적장성의 가능성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실현을 위한 축적규모의 장성은 전적으로 재정자원의 규모에 의존한다.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장성의 가능성에는 새로운 재정자원의 장성을 동반하지 않고 이미 동원된 재정자원의 추가적지출에 의한 축적장성의 가능성과 새로운 재정자원조성에 의한 축적장성, 축적물의 절약적, 효과적비용에 의한 축적장성의 가능성이 있다. 축적장성의 이러한 가능성들은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문제해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재정자원의 장성을 동반함이 없이 이미 마련된 재정자원의 추가적지출에 의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재정자원의 규모가 고정되어있는 조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생산장성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오직 재정예비의 최대한 동원만이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재정예비의 탐구동원은 기존재정토대를 가지고 이미 있는것보다 재정자원을 더 늘이며 지출을 절약함으로써 재정자원의 축적과 소비에로의 지출규모를 늘이는 동시에 추가적지출이 없이 종전의 규모에서도 보다 높은 축적률을 보장하는것과 같은 경제적의의를 가져온다.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면 이미 마련된 재정토대에 기초한 보충적인 축적원천을 조성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을 더욱 늘여나갈수 있다.

현시기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이 생산장성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재정예비의 동원과정이 생산자원을 적극 탐구동원하는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재정예비의 동원과정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

재정예비를 찾고 동원하는 과정은 모든 기업소들에서 노동생산능률제고에 의하여 생산을 장성시키고 원가를 저하하여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더 많이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로부터 재정예비를 동원하여 사회순소득과 국민소득을 늘여나가는 과정에는 높은 생산장성과 원가저하를 예견한 새로운 재정계획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집행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재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한편 재정예비를 탐구동원하는 과정은 생산장성을 위한 생산자원인 설비, 로력, 자재비용에 대한 엄격한 화폐적계산과 재정적통제를 동반한다.

사회주의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을 위한 자금지출과 원가계산, 사회순소득과 소득의 분배계산, 고정자금과 류동자금, 생활비자금 등 기업소경영자금비용에 대한 화폐적계산과정은 생산에 새로 인입할수 있는 추가적인 생산자원들을 찾아내고 동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동원되는 생산자원은 재정자원의 추가적지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현존경제토대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이루면서 생산장성에 이바지한다.

재정예비의 남김없는 동원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재정예비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생산장성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재정예비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경제범주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재정자원의 창조자, 향유자로 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재정자원의 창조와 동원리용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한다.

한편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예비의 형성과 동원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지도밑에 재정의 유일관리제에 의하여 담보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정예비란 존재할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제도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고 따라서 인민대중이 재정자원의 효과적동원과 리용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것과 관련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생산장성의 중요한 담보인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시기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재정체계의 모든 고리들과 재정활동의 모든 단계들에서 화폐자금의 효과적동원의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재정은 국가예산과 기업소재정, 부문재정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측면을 가진다. 국가예산은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기본재정계획으로서 사회주의재정의 기본을 이루며 기업소재정은 그 기초를 이룬다. 재정예비는 국가예산과 기업소재정 등 사회주의재정체계의 모든 고리들에 존재한다.

국가예산활동과정에 재정예비를 최대로 동원하자면 국가예산수입과정에 수입형태를 바로 정하고 납부규모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지출에서 관, 향, 목별 예산지출규모를 과학적으로, 절약적으로 타산하고 그 집행을 용도와 한도대로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정은 재정예비동원에서 근본으로 된다. 그것은 기업소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직접 창조되고 리용되는 사회적재생산의 기층단위이기때문이다.

기업소들에서 재정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저하하며 국민소득, 사회순소득의 증대를 가져와야 한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업소들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재정예비탐구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소들에서는 원료 및 자재비, 감가상각비, 생활비 등 생산비절약과 기업소소득의 효과적인 분배리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는 온갖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임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